



보험

IFRS17 기준서 확정, 중요한 것은 K-ICS

2017. 05. 19

Analyst
이병건
02 369 3381
pyrrhon72@dongbuhappy.com

News

“Transition reliefs”, 연착륙 가능할 듯 IASB(국제회계기준원)에서 IFRS17 기준서를 발표하고 2021년 1/1부터 시행을 확정했다. 간략하게 살펴본 결과로는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등의 주된 내용은 이전에 알려졌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Transition reliefs”라고 하여 시행이전 판매된 계약에 대해서는 완전소급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정가치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일단 시행시점에서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Comment

회계기준과 감독기준은 다르다. IFRS17 시행 때문에 보험사들이 대규모 증자를 해야한다는 주장은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실제 IASB가 함께 발표한 “IFRS17의 영향” 자료를 보면 IFRS17은 투자자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회계기준으로 자본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Solvency2 등의 감독기준과는 상이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현재 한국 감독당국에서도 IFRS17에 부합하는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자본규제제도 K-ICS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순차적으로 RBC제도를 강화해 가고 있다.

Action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으나 공포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다. IFRS17이 보험관행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향후 출시될 보험상품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자본적정성규제 관점에서 보면 자본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위험량의 증가가 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쨌거나 IFRS17 시행에서 세 부사항은 앞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들이 많고, IFRS17 시행이 곧 회사들의 자본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후순위채 발행 등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노력이 큰 무리없이 실행되고 있어 지나치게 우려한다면 좋은 투자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나올 것이다. 일단 최근 수요여력이 이루어진 동부화재의 후순위채 발행은 성황리에 마감되었다고 한다.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당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에게 지난 6개월간 E-mail을 통해 사전 제공된 바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1년간 투자이견 비율 (2017-03-31 기준) - 매수(71.5%) 중립(28.5%) 매도(0.0%)

기업 투자이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업종 투자이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